

研究論文

백낙청 초기 비평의 인식과 구조

강 경 화*

I. 문제제기	IV. 결론 변화와 지속의 측면
II. 순수·참여의 대립 지양과 문학의 조건 개선	<참고문헌>
III. 비평론의 인식구조	<국문요약>

I. 문제제기

백낙청은 박경리의 『시장과 전장』에 대한 서평인 「피상적 기록에 그친 6·25 수난」(1965)으로 활동을 시작한 이후 한국문학비평의 역사적·실천적 지평을 확대하는 데 빼놓을 수 없는 성과를 남겼다.¹⁾ 1960년대 이후 문학의 사회적 실천에

* 한양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의교수, 현대비평 전공(tangsun@chol.com).

1) 비평가로서 백낙청의 출발을 명확하게 규정하기는 쉽지 않다. 「피상적 기록에 그친 6·25 수난」에 이어 한국영어영문학 세미나 발표문(1965. 4)의 요지인 「문명의 위기와 문학인의 입장」을 《조선일보》(1965. 4. 6)에, 그것을 보충 정리한 「궁핍한 시대와 문학정신」을 《청백》(1965. 6)에, 그리고 월평인 「저항문학의 전망」(《조선일보》, 1965. 7. 13), 「문단의 한 해 문학의 한 해」(《조선일보》, 1965. 12. 19)를 발표한다. 이 때까지 백낙청의 신분은 ‘서울대 문리대 전임강사, 영문학자로 소개된다. 그러다가 「서구문학의 영향과 수용」(《신동아》, 1967. 1)에서부터 ‘문학평론가’라는 호칭이 처음으로 병기되어 나타난다. 그런데 이 글이 「새로운 창작과 비평의 자세」(1966) 이후 『창작과비평』 외부에 발표한 첫 글이라는 점, 『창작과비평』에 실린 글이 대체로 저자명과 역자명만을 밝히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문학비평가로서 공적인 인정은 「새로운 창작과 비평의 자세」라고 할 수 있다.

대한 열정과 구체적인 방향설정에서 백낙청은 맨 앞자리에 있으며 동시에 높은 수준을 보여주었다. 그의 비평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서 있는 자리와 우리 사회의 상황을 급하게 돌아보지 않을 수 없도록 하는 양심의 위기를 유발하던 것이었다.”²⁾

이러한 비평적 성과와 관련하여 백낙청의 참여론은 “우리 문단에 상투형으로 굳어버린 순수론을 근본적으로 깨뜨리면서 제출되었고, 그 이후 문학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에 획기적인 변혁을 초래했”³⁾다는 것, 또한 그의 “민족문학론은 우리 문학이 오랜 자기망각 과정에서 진정으로 깨어난 소망스런 출발”⁴⁾이자 “민족사적 현실에 입각하여 더욱 구체화하고, 세계문학과 대응관계에서 그 의의를 확장하였다”⁵⁾는 평가를 받아왔다. 백낙청 비평의 전반을 살펴보면 이러한 평가가 지나친 과장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물론 그에 대한 비판 역시 만만치 않게 제기되어 왔던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기존 논의의 대부분은 민족문학론에 집중되었다.⁶⁾ 백낙청 비평을 규정하는 고유한 문제의식이 민족문학론인 것은 물론이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의 비평은 참여문학론과 시민문학론에서 민족문학을 거쳐 리얼리즘론, 농민문학론, 제3세계 문학론, 민중문학론, 분단체제론 등으로 전개된다. 그런데 그것들은 모두 민족문학론을 중심으로 통합되고 또한 민족문학론에서 분화된 것이다. 민족문학론이야말로 백낙청을 우리 비평사에 각인시킨 결정적인 영역이며 동시에 우리 문학에 남긴 공적이기도 하다. 이 점에서 민족문학론을 중심으로 전개된 기존 논의의 시각과 노력은 당연하다.

그러나 백낙청 비평의 전체를 이해하려 할 때, 그의 초기 비평은 반드시 검토되

2) 김우창, 「민족 문학의 양심과 이념」, 『세계의 문학』 1978년 여름호 176 쪽

3) 최원식, 「70년대 비평의 방향」, 『민족문학의 논리』(창작과비평사, 1991), 324 쪽

4) 위의 책, 305 쪽

5) 구중서, 「70년대 비평의 현황」, 『민족문학의 길』(새발, 1979), 88 쪽.

6) 대표적인 논의로는 다음을 들 수 있다. 김치수, 「양심 혹은 사랑으로서의 민족문학」, 『문학과지성』 1978년 가을호; 성민엽, 「민중문학의 논리」, 『1985년 가을』(현암사, 1985); 김인환, 「민족문학과 리얼리즘」, 『외국문학』, 1985년 여름호; 김태현, 「백낙청론」, 『문학의 시대(3)』(폴빛, 1986); 하정일, 「시민문학론에서 근대극복론까지」, 『한국문학평론』, 1997년 여름호; 문홍술, 「90년대 민족문학론의 위기, 그 실체」, 『무에』(1998. 5); 김미정, 「1970, 90년대 민족문학론에 나타난 ‘주체성’에 대한 인식 양상」, 『동남어문논집』, 15집(2002); 고명철, 「민족문학 운동으로서의 실천적 비평」, 『칼날 위에 서다』(실천문학사, 2005).

어야 할 대상이다. 그러지 않을 때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내포하게 될 것이다. 우선 그러한 이해 방식은 백낙청 비평의 총체를 민족문학론 중심의 영역 속에 완고하게 가두는 일이 될 수 있다. 또한 여기에서 실제와 달리 과장 확대되거나 혹은 폄하될 가능성마저 배제할 수 없다. 더욱 중요한 문제는 그의 비평의 전체적인 궤적 속에 내재한 변화와 지속의 역동적인 과정이 묻혀질 수 있다는 점이다. 민족문학론으로 전개되는 70년대 비평과 초기 비평 사이에는 급격하거나 완만한 변화의 과정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 글의 문제의식은 여기에서 출발한다.

물론 초기 비평에 대한 논의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⁷⁾ 그러나 이들의 관심은 「새로운 창작과 비평의 자세」에 한정되어 있고, 여타의 논의들도 「시민문학론」이라는 특정한 비평문만을 포함한 민족문학론 중심이었다는 점에서는 다를 바 없다. 이러한 작업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초기 비평의 구체적인 면모가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다는 점이다. 초기 비평에는 보기에 따라 새롭게 조명되어야 할 여러 월평과 「궁핍한 시대와 문학정신」, 「서구문학의 영향과 수용」, 「역사소설과 역사의식」, 「한국소설과 리얼리즘」 등의 중요한 평문들이 있다.

따라서 이 글은 기존의 논의에서 제외되었던 월평과 여러 비평문들을 대상으로 백낙청의 초기 비평을 전면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씌어진다. 이러한 시각이 갖는 타당성은 다음 몇 가지 점에서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특정한 담론이나 대표적인 평문 중심에서 벗어나 한 비평가를 총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선행 작업이라는 것, 둘째, 초기 비평에서 백낙청 비평의 기본적인 인식구조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 셋째, 전체적인 전개 과정 속에 내포된 변화와 지속의 측면, 그리고 그 성과와 한계를 짚어낼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초기 비평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시민문학론」(1969)까지로 한정할 것이다. 이러한 판단에는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전제로 한다. 먼저 활동의 시간적 공백을 들 수 있다. 백낙청은 「시민문학론」(『창작과비평』 8) 1969. 여름을 끝으로 미국으로 떠난다⁹⁾ 그가 귀국하여 활동

7) 이 글의 문제의식과 관련하여 주목할 글로는, 권성우, 「60년대 비평문학의 세대론적 전략과 새로운 목소리」, 『1960년대 문학연구』(예하, 1993); 권성우, 「1960년대 비평에 나타난 ‘현대성’ 연구」, 『한국학보』, 96집(1999 가을); 이명원, 「백낙청 초기 비평의 성과와 한계」, 『타는 혀』(새움, 2000)이 있다.

8) 앞으로 『창작과비평』은 『창비』로 표기할 것임.

을 재개한 것은 『농무』 ‘발문’(1973. 3)부터이며, 1972년 겨울호부터 다시 편집을 맡게 된다.¹⁰⁾ 그리고 1973년 「문학적인 것과 인간적인 것」(『창비』, 1973. 여름)을 발표하면서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시민문학론」에서 본격적인 활동의 재개 사이에는 4년에 가까운 공백기가 존재하는 것이다.

문제는 이것이 단순한 시간적 공백만이 아니라 비평 인식의 간극과 변화를 포함한다는 데 있다. 이 기간 동안 서구문학적 준거틀의 약화, 한국문학의 특수성에 인식, 주체적 시각의 강화, 분단상황의 예각화, 문학의 도구성으로의 경사, 민족문학이란 용어의 등장과 개념의 내실 등의 변화가 동반된다. 이 변화는 「민족문학이념의 신전개」(1974)를 예비하는 것인 동시에 ‘시민적 전망’에서 ‘민족·민중적 전망’으로의 인식적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을 의미한다. 이 점을 고려한다면 백낙청의 초기 비평은 「시민문학론」을 정점으로 구획된다고 할 수 있다. 이제 이러한 전제를 바탕으로 백낙청의 초기 비평에 내재한 비평인식과 인식구조를 중심으로 살펴보자.

II. 순수·참여의 대립 지양과 문학의 조건 개선

1. 순수와 참여의 비판적 인식

백낙청 비평은 40여 년에 이르는 긴 활동에 비해 단순할 만큼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이론적 선명함과 분명한 방향성 때문이다. 그의 비평 전체를 요약한다면 참여문학론, 시민문학론, 민족문학론, 분단체제론으로 전개되어 왔다고 정리할 수 있다. 이러한 비평 활동의 궤적에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문학의 사회적 실천이라는 비평인식을 시종 견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그는 초기 비평에서부터 참여의 입장을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9) 「사고」, 『창비』, 1969년 가을·겨울 합병호 715 쪽 이 때 『창비』 편집인도 신동문으로 바뀌는 동시에, 발행도 창작과비평사에서 직접 담당한다.

10) 『창비』, 1972년 겨울호 「편집후기」에는 “그 동안 외국에 나가 있던 백낙청 씨가 귀국과 함께 다시 본지의 편집인으로 복귀했다”는 동정 기사가 실려 있다.

「궁핍한 시대와 문학정신」(《청맥》, 1965. 6)에서는 문학과 사회에 대한 아놀드 통찰을 통해 지식인의 진정한 참여를 강조하고 있으며, 「저항문학의 전망」(《조선일보》, 1965. 7. 13), 「문단의 한 해 문학의 한 해」(《조선일보》, 1965. 12. 19) 등의 월평에서는 남정현의 구속과 문단의 현황, 한일회담 반대서명작가의 구속과 노벨상수상작의 번역금지 등의 상황을 거론하면서 문학의 사회적 기능과 참여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를 통해 우선 백낙청 비평의 문제의식과 방향성의 윤곽을 파악할 수 있다.

특히 『창비』 창간호에 실린 「새로운 창작과 비평의 자세」는 그의 문학적 입장을 구체적인 형태로 제기한 야심적인 글이다. 이 글의 문제의식은 순수문학에 대한 비판의식에서 출발한다. 비판의 핵심은 역사와 현실을 초월하려는 순수문학 역시 결국 특정한 이데올로기의 산물이며 지배계급의 이념에 이바지 해왔다는 것이다.

문학이 역사적 현실과 이데올로기를 초월한 그 자신만의 영역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은, 문학이 질적으로 우수해야 하고 그런 의미에서 순수해야겠다는 말과는 매우 다르다. 후자가 이데올로기와 상관없이 통용될 수 있는 상식인데 반해 앞의 것이야말로 어떤 특정한 이데올로기의 산물이며 삶에 대한 특정한 태도를 나타낸 것이다.¹¹⁾

백낙청의 지적대로 문학의 순수성 주장이 역설적으로 언제나 정치적이었음은 문학사가 증명한다. 가령, 역사와 정치를 무시하고자 하는 시도 자체가 이데올로기성을 뚜렷하게 부각시킬 뿐만 아니라,¹²⁾ 문학과 예술의 특수한 정치적 역할의 조건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넓게는 정치적 무관심과 환멸을 조장함으로써 정치적이다. 또한 문학의 자율성과 순수성을 옹호해야만 하는 현실적 상황에서 주장되고, 동시에 정치적인 문학에 저항하는 하나의 방식이기에 정치적이다.¹³⁾ 만일 예술이 자신의 자율권을 단언하는 경향이 있다면 그것은 오히려 정치에 대한 개입의 힘을 보존하고 있기 때문이다.¹⁴⁾

11) 백낙청, 「새로운 창작과 비평의 자세」, 『창작과비평』, 창간호(1966), 6쪽. 앞으로 백낙청의 글은 이름을 명기하지 않을 것임.

12) 테리 이글턴(저), 김명환·정남영·장남수(역), 『문학이론입문』(창작사, 1986), 240쪽.

13) 폴 프티에(저), 이종민(역), 『문학과 정치사상』(동문선, 2002), 81쪽.

순수문학에 대한 백낙청의 비판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우선, 문학은 사회의 여러 영역과 독립된 별개가 아니라는 것이다. 문학과 사회의 제반 영역을 불가분의 관계로 파악하는 이러한 관점은 그의 비평에서 매우 중요한 인식론적 기반에 해당한다. 이런 인식적 기반에서 사회과학적 방법의 원용을 주장하고,¹⁵⁾ 문학의 존재조건에 대한 탐색을 시도하였으며, “민족문학의 개념을 고수할 것을 요청하는 어떤 구체적인 민족적 현실이 있어야 한다”¹⁶⁾는 민족문학론으로 구체화될 수 있었을 것이다. 역사적 현실을 떠난 백낙청 비평을 생각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다른 하나는 서구의 순수문학이 근면한 산업사회의 산물이었던 데 반해 한국의 순수문학의 근저에는 양반계급의 생활태도가 있다는 것, 따라서 사회에 소극적이고 안이한 창작태도, 족벌주의 관권에 대한 외경 등 비순수한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¹⁷⁾ 이어 그는 “전근대적인 기반을 숨긴 채 이득한 남의 문학의 구호, 그나마 시효가 엔간히 지난 구호를 빌려온 것은 하나의 이론으로 문제삼을 여지도 없다”¹⁸⁾라고 단언한다.

순수문학론자들이 특정한 정치적 이데올로기와 특정한 문학적 입장을 대변해왔고, 그것을 권력적 담론으로 활용해왔던 것은 사실이다.¹⁹⁾ 특히 반공의 이름으로 행사했던 억압적 담론은 백낙청의 판단으로도 “<자유기업> 과 더불어 한국민주주의의 철칙처럼 되어 여하한 이탈행위도 용납되기 어려웠”²⁰⁾던 상황이었다. 이 점

14) 위의 책, 73쪽

15) 이에 대해서는 「새로운 창작과 비평의 자세」, 6쪽과 「작가와 평론가의 대결」 《사상계》 1968년 2월호, 152쪽 참조

16) 『민족문학과 세계문학』(창작과비평사, 1978), 124쪽.

17) 문단의 과당적 행태는 단편적이거나 「작단시평: 문단의 한 해 문학의 한 해」(《조선일보》, 1965. 12. 19)에서도 비판하고 있다

18) 「새로운 창작과 비평의 자세」, 9쪽

19) 백낙청이 활동을 시작하던 1960년대 중반, 순수진영의 대표적인 인물인 김동리와 조연현은 문단의 지도부에 있었다. 이 무렵을 전후하여 김동리는 민족문화중앙협의회 부이사장 민족문화추진위원회 이사, 한국예술문화윤리위원회 상임위원이었으며, 순수-참여 논쟁에서 순수문학을 대변했던 이형기, 원형갑, 김상일 역시 한국문인협회의 간부진으로 참여하고 있었다. 한강희 「1960년대 한국문학비평 연구」, 성균관대 박사학위 논문(1997), 125쪽 참조 특히 그들은 반공의 이름으로 강력한 권력적 담론을 형성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강경화, 『한국 현대문학의 이면과 탐색』(푸른사상, 2005), 1부 참조

에서 그의 비판은 뼈아픈 지적이었다. 그러나 백낙청의 순수문학 비판 역시 몇 가지 측면에서 비판이 가능하다.

먼저, 앞의 예문에서 그가 비판의 전제로 삼고 있는 ‘문학의 순수성’과 ‘질적 우수성’ 사이에는 아무런 연관 관계가 없다. 두 항목 사이의 논리성이 성립하려면 문학의 순수성이 곧 문학의 질적 우수성을 보장한다는 순수문학론자들의 또 다른 명제를 필요로 한다. 그런데 이에 대한 어떤 입장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백낙청은 자의적인 전제를 통해 순수문학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한국 순수주의의 뿌리리는 양반문학의 이념에 대한 백낙청의 인식이 매우 피상적이라는 사실이다. 때문에 비판의 진정성과 함께 설득력에도 의문이 간다.

더욱 문제적인 것은 순수문학이 서구의 중산층 이데올로기라는 점을 근거로 비판하고 있다는 점이다. “건실한 중산계급의 발전을 본 일 없는 한국사회에 유럽 부르조아지시대의 예술신조가 뿌리박았을 리 없다”²¹⁾는 판단이 그것이다. 순수주의가 특정한 이데올로기라는 지적은 타당하다. 하지만 특정한 이데올로기의 형식으로 문학의 정치주의에 배타적일 수밖에 없었던 한국 순수문학의 특수한 발생론적 맥락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

다만 서구적 기준을 빌어, ‘제대로’ 정리 안 된 전근대적 자세를 ‘제대로’ 소화 못한 근대 서구예술의 이론을 빌려 옹호하려는 노력으로 폄하할 뿐이다. 나아가 이는 한국의 후진적 사회구조를 견지하려는 것과 정확히 대응되는 현상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순수문학 비판에서 백낙청의 서구문학적 사고의 틀을 파악할 수 있다. “우리가 부모의 피와 살을 받았듯이 이어받은 전통이 태무하다”²²⁾는 극단적인 전통 단절을 낳게 한 인식론적 편향성도 한국의 문학적 현실과 전통에 대한 인식의 결여가 근본적인 원인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순수문학 비판 보다 더 중요하게 짚어보아야 할 사항이 따로 있다. 백낙청이 참여문학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만일 순수문학 비판만이 부각될 경우 한국문학의 낙후성을 극복하고 새로운 문학의 기반을 닦기 위한 그의 문제제기가 협소하게 제한될 우려가 있다. 백낙청의 폐기와 열

20) 「새로운 창작과 비평의 자세」, 5쪽

21) 위의 글, 8쪽

22) 위의 글, 16쪽

정은 순수·참여의 대립을 넘어 저 높은 차원을 향해 있었다. 여기에 새로운 창작과 비평의 자세를 열정적으로 개진했던 그의 본의가 있으며, 초기 그의 비평인식을 이해하는 중요한 단서가 담겨 있다.

백낙청은 「궁핍한 시대와 문학 정신」에서 진정한 참여란 삶에 기여하는 것이며, 그것은 도의적 의무가 아니라 작가적 생명이라고 강조한다. 그에게 현실참여는 문학인의 ‘순교’를 거론할 만큼 절실했다.²³⁾ 그가 보기에 현실참여를 강조하는 허다한 주장이 생산적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었다. 따라서 한국문학의 장래는 순수와 참여의 허구적인 문학 이념으로부터 벗어나는 데 있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이러한 인식에서 기존의 참여문학의 한계를 냉철하게 평가하는데, 그의 비판적 성찰은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가령 “대국적 안목없는 순수주의 비판은 지엽적 논쟁이나 파벌싸움에 말려들기 쉬울 뿐만 아니라 문학의 온전한 사회적 기능을 옹호하지 못하기 쉽다”²⁴⁾는 우려나, 혹은 “요즈음 우리 주변에서 <참여>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많은 비판은, 순수주의에 숨겨진 사회적 배경과 정치적 향배를 들춰내는 데 날카로운 대신 작품의 실지비평에 이르러 소재본위 혹은 피상적 경향성본위의 도식화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다”²⁵⁾는 평가 등이 그것이다.

그가 사르트르의 「상황」을 인용하여 문학의 도구성을 부정한 것도 소박한 공리성의 한계를 인식한 결과이며, 문학의 이월가치를 통해 창작활동의 자율성과 문학의 순수성을 인정한 것도 참여문학의 이념적 도식성과 사회적 행동강령에 대한 근원적 불신과 관련이 있다. 백낙청이 원용한 문학의 이월가치는 기본적으로 위대한 문학이 갖는 항구적 보편성이다. 그러나 그것은 동시대의 서로 다른 정치적 이념과 역사적 배경 사이에서도 이월될 수 있다. 다시 말해 이월가치는 경직된 이념을 넘어서는 경계의 이월을 포함한다. 동시에 그런 가치가 발휘하는 문학적 힘에 대한 역사적이고 시대적인 신뢰를 대신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 섰을 때 이념적 경계에 갇혀 문학의 이월가치가 공존하는 세계를 용납하지 못하고 “고정된 정책이나 사회적 행동강령으로 문학을 규제하려는 노력은 문학을 죽이는 일”²⁶⁾이었다.

23) 「궁핍한 시대와 문학정신」, 《청맥》, 1965년 6월호 140쪽

24) 「새로운 창작과 비평의 자세」, 9쪽

25) 위의 글, 10쪽

26) 위의 글, 11쪽

때문에 백낙청은 ‘보수반동’이라는 사회과학의 불분명한 용어로 작품을 평가하는 일부 참여론자들의 난폭한 평론을 질타하는가 하면, 문학의 참여를 마치 정치적인 활동에 직접 가담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소아병적 사고를 비판한다.²⁷⁾ 그가 경계한 것 중의 하나는 이처럼 참여의 ‘맹목적 행동주의’²⁸⁾였다.

이제 우리의 상황이 고전적 예술은 물론 문화활동 자체를 위협하는 것이라 해서 즉시 문학과 예술 내지는 지성의 활동을 버리고 더 「직접적」 참여를 주장한다면 그것은 가일층의 속단이 되기 쉬운 것이다. 사태가 절박할수록 사태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생략할 수 없다.²⁹⁾

참여론자들의 경직성을 비판하는 대목에서 다음 몇 가지를 알 수 있다. 백낙청의 참여는 도식적인 강령이나 직접적인 행동이 아닌 작품을 통한 참여라는 것, 문학의 사회적 기능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 대국적 안목 없는 순수주의 비판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 따라서 “우리의 현실과 문학의 참 기능에 대한 소상한 성찰”³⁰⁾을 통해 “인간에 대한 어떤 궁극적 이상의 차원에서 비판하고 변화시켜야”³¹⁾ 한다는 것이다.

결국 백낙청은 문학의 현실적 참여를 견지하면서도 순수와 참여 모두를 비판하는 양비론적 입장에 있었다. 그것은 애매한 절충주의가 아니다. 새로운 창작과 비평을 정립하기 위한 비평적 노력의 일환이었다. 이러한 일련의 작업을 통해 그가 근본적으로 제기하는 문제는 문학의 참기능과 인간에 대한 궁극적 이상이였다. 그것은 무엇인가. 이에 대한 해명은 백낙청이 열정적으로 개진했던 새로운 창작과 비평의 자세만이 아니라 초기 그의 비평인식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비평적 지향과 직결되어 있다. 그렇다면 이제 “참된 순수성을 자랑할 작품을 만드는 것과 그러한 순수성을 살린 이상을 갖고 현실을 비판하며 개조하는 것은 바로 한 가지 작업이다”³²⁾는 발언 속에 내장된 문학의 순수한 기능이란 무엇인가를 검토해보기로 하자.

27) 「작가와 평론가의 대결」, 《사상계》, 1968년 2월호

28) 「새로운 창작과 비평의 자세」, 34쪽

29) 「궁핍한 시대와 문학정신」, 140쪽

30) 「새로운 창작과 비평의 자세」, 6쪽

31) 위의 글, 9쪽

2. 건전한 놀이로서 문학의 기능과 문학의 조건 개선

백낙청은 진정한 현실참여의 가능성이 당시의 역사적 상황에 달려있다고 주장한다. 「궁핍한 시대와 문학정신」에서 그가 주목한 것은 아놀드의 문학적 전환에 나타난 문학과 사회에 대한 통찰이었다.

문학은 작가 개인 뿐 아니라 그 사회의 산물로서, 문학의 문제를 그 사회적 상황과 떼어서 이해하고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시인이 자신의 고독과 불안을 토로하는 데 전념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사회적 현상이며 이른바 객관적 예술의 우월성을 주장한 것은 이러한 현상이 극복되어야 할 상황임을 밝힌 것이다.³³⁾

개인의 고독과 불안도 사회적으로 매개되어 있다는 이러한 견해는 지금으로서는 상식에 속하지만 당시로서는 남다른 통찰이 아닐 수 없다. 아도르노는 루카치를 향하여 고독 자체도 사회적으로 중재되며, 근본적으로 역사적 내용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³⁴⁾ 마르크스 역시 ‘소외를 인간 조건의 의식과 자체의 역사적 사명 의식을 상실한 사회에서 그 사회에 속한 한 인간이 완전히 이질화된 자신을 비로소 인식할 때 경험하게 되는 무능함과 고독의 감정으로 정의하고 있다.³⁵⁾ 그러나 개인의 고독과 사회의 긴밀한 관련성을 깊게 인식하지 못한 당대의 풍토에서 백낙청은 그것을 ‘보기 드문 상식’으로 이해하고 있다. 가령 이런 것이다

“현대문명을 규탄하고 자신의 고립을 설어워하는 작가는 허다하지만, 다른 사회현상과 더불어 자신의 감정과 그 감정을 표현한 그의 예술조차도 하나의 극복되어야 할 현상임을 인정하는 이는 드문 것 같다. 오히려 자기의 불행을 어떤 정서적 우월성의 증거로 과시하려는 경향이 너무나 많은 것이 사실이다”³⁶⁾ 바로 이러한

32) 위의 글, 12쪽

33) 「궁핍한 시대와 문학정신」, 133쪽

34) T.W. 아도르노(저), 김주연(역), 『아도르노의 문학이론』(민음사 1985), 80쪽

35) 레나토 포지올리(저), 박상진(역), 『아방가르드 예술론』(문예출판사 1996), 164쪽

36) 「궁핍한 시대와 문학정신」, 133쪽

독선을 아놀드가 참된 예술의 이름으로 배격했다는 것이 그의 판단이다. 당대의 한국적 상황에서 아놀드를 통해 비추고자 했던 문학정신이 이와 같다면 문학의 현실참여에 대한 백낙청의 인식이 꽤 뿌리 깊은 것임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참여의 입장이 아니다. 그 보다는 효과적인 현실참여를 위해 구비되어야 할 조건의 제시에 있다. 백낙청은 그 조건으로 풍부한 소재, 유능한 독자를 기를 양식, 서구문학과 같은 풍부한 유산을 꼽고 있다. 더욱 의미 있게 되새길 부분은 이것 못지않게 한 사회의 제도적 여건을 적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제도적 여건이란 최소한의 치안 상태, 어느 수준 이상의 경제 생활, 어느 정도 이상의 교육받은 인구, 정치적 자율성의 존중 비평정신이 성숙할 여유, 그리고 동맹과 선동없이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지성을 말한다.³⁷⁾

여기서 일차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은 다음 네 가지이다. 첫째, 그의 현실참여가 매우 실제적인 동시에 ‘조건 만들기’로서의 참여라는 사실이다. 참여의 조건을 제도적 차원에서 접근한 사실 자체가 우리 문학사에서 매우 이례적인 경우에 해당한다. 둘째, 그것이 당대 한국사회와 문학의 현실에 대한 사태 분석에 근거하여 제기한 문제라는 것, 셋째, 이러한 문제의식이 「새로운 창작과 비평의 자세」에서 한국문학의 변혁을 위한 조건으로 다시 제기할 만큼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 넷째, 문학과 사회의 제도적 조건 만들기는 그가 보편적 이상으로 믿고 있는 문학의 진정한 사회적 기능, 즉, 참여의 본질적인 의미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이다.

문학의 참여는 본질적으로 문학의 기능적 측면을 강조한다. 그런 이상, 백낙청이 제시한 문학의 조건이 문학의 사회적 기능으로 수렴되는 것은 당연하다. 문제는 그가 믿고 있는 문학의 진정한 사회적 기능이 무엇인가에 있다.

이상적인 경우는 물론 모든 사람이 다 가장 훌륭한 문학을 가장 건전하게 즐기는 상태일 게다. 그러기 위해 충분한 물질적 시간적 여유가 있어야 하고 참된 자유와 높은 문화수준이 보편화되며, 같은 이념으로 뭉친 공동사회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작가가 자기의 문학적 재능을 살리는 것이 자기 사는 사회를 즐겁게 하는 것이요, 개인감정을 노래하는 것이 바로 사회를 반영하는 것이며 사회를 반영하는 것만으로 보다 나은 장래를 이룩하는 일을 돕는 결과가

37) 위의 글, 138~139쪽.

될 것이다. 독자 또한 작가에 못지 않게 행복하리라 시간을 흥겹게 보내는 동안 저절로 위대한 문학의 감화를 받고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며, 자기 맡은 직책에 충실하는 순간순간이 보다 나은 문학의 생성을 촉진하는 것이다.³⁸⁾

백낙청이 추구하는 문학의 기능은 영원불변의 심미성의 창조도, 인민의 저항을 대변하는 것도, 진리의 자기계시도 아니다. 이것들은 모두 위압적인 이론에 불과하다. 문학의 진정한 사회적 기능은 고급한 놀이, 곧 모든 사람이 가장 훌륭한 문학을 가장 건전하게 즐기는 ‘즐거움’에 있다. 이를 위해 어떤 조건이 필요하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던 것이다. 백낙청이 그 전체 조건으로 들었던 것은 물질적 시간적 여유, 참된 자유와 높은 문화수준, 같은 이념으로 뭉친 공동사회였다. 이는 앞에서 제시한 문학과 사회의 제도적 조건과 다르지 않다.

이러한 문학의 기능과 문학적 조건에 비추었을 때 당대 한국 사회는 어떠했는가. 백낙청의 판단에 따르면 60년대 중반 한국 사회는 문학의 건전한 놀이를 언급하는 것조차 허무할 정도였다. 물질적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없는 100불 내외의 1인당 연평균 소득, 참된 자유와 높은 문화 수준 대신 반공이념의 제도적 억압과 유명무실한 6년간의 의무교육, 그리고 분단상황으로 인해 같은 이념으로 뭉친 공동사회조차 생각할 수 없었다.³⁹⁾ 그 뿐만이 아니다. 대다수 대중들은 문학을 읽을 여유도 능력도 의욕도 없는 사람들에 불과하다. 짜르트르의 ‘현실의 독자층’과 ‘잠재적 독자층’을 원용하여 대중을 향한 창작과 비평의 자세를 촉구한 것도 당대 한국의 현실에 대한 이 같은 냉철하면서도 비관적인 인식에서 연유한다. 이 때문에 그의 실천적 과제가 “민중은 왜 독서행위로부터 소외되었고 어떻게 하면 현실의 독자가 될 수 있으며 그들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⁴⁰⁾라는 문제의식으로 제시되었던 것이다.

잠재독자층의 압도적인 숫적 우세와 극심한 소외상태, 그리고 현실독자들의 한심한 수준—이것이 현대 한국문학의 사회기능을 규정하는 결정적 여건이다.

38) 『새로운 창작과 비평의 자세』, 13쪽

39) 위의 글, 13쪽

40) 위의 글, 18쪽

이런 상황에서 현실독자층의 대다수에게 오락을 제공하는 일이 참된 문학의 기능일 수 없음은 물론이다...애초부터 문학이 그들의 오락일 수도 없는 사람들의 괴로움과 억울함을 대변하는 것, 동시에 최고의 수준을 고집하는 독자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 그리고 그것이 그의 용기와 양심을 마비시키지 않고 오히려 북돋아주는 건전한 놀이가 되는 것—이러한 조건을 다 갖춤으로써만 한국문학은 오늘의 사회에서 살 수 있으며, 작품은 팽팽한 긴장과 생명력을 얻을 것이다.⁴¹⁾

당대 독자들의 의식상태를 ‘한심한 수준’으로 평가하는 발언의 한편에 서구적 교양에 물든 지식인의 지적 자부심이 짙게 배어있음을 볼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자부심이 지식인의 책무를 강조한 내적 동인이었을 것이다. 문학을 건전한 놀이로 삼을 여유가 없는 불행한 대중들을 위해 문학이 그들의 대변자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매우 현실적인 제안이다. 이것은 언뜻 지식인의 계몽적 대중교화론에 가까워 보인다. 하지만 문학의 이상적 상태인 건전한 즐거움은 작가와 독자의 긴밀한 소통과 연대 없이는 불가능하다. 대중과 소통할 수 없는 문학이 건전한 놀이로 대중들에게 향유될 수 없음은 당연한 일이기 때문이다.

그의 초기 비평에서 이례적으로 높이 평가하는 이광수 문학의 힘을 대중과의 소통과 잠재적 독자들을 향한 부름에서 찾은 것도 이런 까닭이다. 또한 바로 이러한 인식에서 현실과 절연된 순수주의를 귀족적인 여유와 전근대적인 특권이라고 비판했던 것이며, 같은 이유로 참여문학의 직접적 참여와 행동강령에 대해서도 그것이 오히려 문학을 죽이는 일이라고 비판했던 것이다. 그는 한 글에서 “『창비』로 말하자면 그 창간호(1966) 권두 논문에서 바로 순수·참여 논쟁의 지양을 내세웠다”⁴²⁾고 말한 적이 있다. 이 발언이 문학의 이상적 차원을 지향하면서 낙후된 한국문학의 조건에 대한 냉철한 인식과 순수·참여의 대립을 넘어서야 할 당위성을 반영하고 있다면, 그것은 수사적 차원이 아니라 한국문학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백낙청의 절실한 문제의식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같은 백낙청의 인식에서 무엇보다 주목해야 할 사항이 있다. 하나는 문학의

41) 위의 글, 19쪽

42) 「1983년의 무크운동」, 『한국문학의 현대계Ⅲ (창작과비평사 1984), 19 쪽

진정한 사회적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문학의 조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그것을 직접 실천하는 역사의 주동적 역할을 작가와 지식인이 담당해야 한다는 실천적 의지이다.

한국에 관한 한, 민중의 저항을 가로막고 근대화를 위한 가장 보편적인 이상을 제시하며 또 실천하는 역사의 주동적 역할을 작가와 지식인이 맡아야 한다는 데엔 딱 말이 있기 어렵다.⁴³⁾

특히 우리가 주목하려는 것은 문학의 본원적 조건과 존재방식에 관한 인식이다. 다시 강조하자면, 백낙청이 생각하는 문학의 진정한 사회적 기능은 건전한 놀이로서 문학, 즉 즐거움으로서 문학의 존재이다. 그것은 결코 천박한 도구적인 차원과 다르다. “예술적 즐거움은 바로 삶의 가장 순수하고 절대적인 가치”⁴⁴⁾라는 의미에서의 문학적 향유이다. 이러한 인식은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까지 지속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가령, “시대를 넘어 지속되는 ‘예술적 즐거움’이 바로 예술을 통해 구현되는 진리와 유관하다”⁴⁵⁾는 언급이 그것이다. 사실 그의 시민문학 역시 “이상적으로 모든 시민이 공유하는 문학”⁴⁶⁾이 아니던가. 이와 함께 문학의 이월가치와 창작의 자율성, 그리고 현실독자와 잠재독자의 문제제기도 소통 가능한 즐거움과 문학적 영향력에 바탕을 둔 발언이었다. 이러한 이해를 기반으로 했을 때에야 비로소 다음의 발언이 지니는 의미가 제대로 드러난다.

문학이 문학 아닌 것으로 변할 때 문학의 사회기능도 없어지게 마련이다. 어떤 부정적 사회기능을 가진 문학이 특정한 역사적 상황과 인간의 산물인 만큼, 문학으로부터 좀더 적극적인 사회기능을 요구할 때 그러한 문학을 낳을 수 있는 사회 및 인간에 대한 꿈이 있어야 하며 그 꿈의 실현에 문학이 참여하기 위한 구체적 복안이 요구된다.⁴⁷⁾

43) 『새로운 창작과 비평의 자세』, 34쪽

44) 위의 글, 32쪽

45) 『민중문학의 새 단계』(창작과비평사, 1990), 366쪽.

46) 『시민문학론』, 『창비』, 1969년 여름호, 472쪽.

47) 『새로운 창작과 비평의 자세』, 9쪽

문학의 존재 방식에 대한 위의 인식은 백낙청 비평의 전체를 규율하는 핵심이라고 판단된다.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사회와 인간에 대한 꿈의 실현에 문학이 참여하기 위한 복안이 있으며, 문학은 문학 아닌 방식으로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도저하고 합리적인 인식이다. 문학을 선택한 비평가로서 문학이 문학 아닌 다른 어떤 방식으로든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야말로 문학을 정치적·사회적 투쟁의 수단으로 삼았던 과거 참여 문학론자들과는 차별되는 그의 합리적인 면모이다.

이런 그에게 절실한 문제는 문학이 진정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작가, 독자, 제도 등 사회적 조건을 만드는 일이었다. “후진국에서는 문학 한다는 것과 문학을 위한 준비활동을 한다는 것을 겸하는 형태를 모색하는 데 집중된다”⁴⁸⁾는 주장은 아직 본격적인 문학의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던 60년대 한국의 현실에서 문학을 위한 준비작업을 동시에 해나가야 한다는 이중의 어려움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에게 절실한 것은 역사적 현실이 아니라 문학적 현실로서 문학의 조건이었다. 바로 이 때문에 한일국교의 재개가 물질적 안정과 여유를 전제로 하는 문학에는 오히려 새로운 기회와 가능성일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하였으며,⁴⁹⁾ 5·16 이후의 경제성장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문학의 조건 개선에 열정을 기울였던 초기의 비평인식은 점차 삶과 역사적 현실의 변혁과 개선으로 변모된다. 이러한 변화의 가장 두드러진 징후는 문학의 자율성에 대한 인식의 편차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60년 중반 백낙청이 창작활동의 자율성, 즉 문학의 진정한 순수성을 인정하고 있음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다. 물론 그것이 역사적 관심과 제약으로부터 면제되는 자율성이 아니라는 유보적 단서를 달고는 있다. 하지만 미학적 자율성과 작가적 순수성에 대한 입장은 70년대에 이르면 확연히 문학의 도구성으로 기운다.

작품의 <자율성>이란 말은 또 작품은 도구가 아니라는 말로 풀이되기도 한다. …이것 역시 예술의 중대한 일면을 꼬집는 반면에 공연한 신화나 특권의식을 조장하기 쉬운 말이다. 세상에 완전히 자율적인 존재가 없듯이 삼라만상이 다 도구로 쓰여야 할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유독 예술작품이라는 물건

48) 위의 글, 25쪽

49) 「저항문학의 전망」, 《조선일보》, 1965년 7월 13자

만이 예외가 될 수는 없다.⁵⁰⁾

확실히 문학의 도구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인식의 변화가 초기 비평의 정점인 「시민문학론」(1969)에서 민족문학의 이념을 정립하는 「민족문학 이념의 신전개」(1974) 사이에 자리한다는 사실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 새로운 창작과 비평의 자세에서 시민문학론을 거쳐 분단모순의 극복, 인간해방의 논리, 전지구적 민중연대로 이어지는 백낙청 비평의 전개과정이 문학의 조건 만들 기에서 역사 사회적 현실의 개선이라는 인식의 변모 과정이었음을 알 수 있다.

III. 비평론의 인식구조

1. 양비론과 상황의식

백낙청의 초기 비평을 검토해 보면 호소력과 설득력이 유감없이 발휘되고 있다. 그것은 열정적인 폐기와 폭넓은 공감대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감의 요인으로 우선 양비론적 인식구조를 들 수 있다. 참여의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기존의 순수와 참여를 비판적으로 지양한다거나(「새로운 창작과 비평의 자세, 「궁핍한 시대와 문학정신」), 서구문학을 수용하는 두 가지 방식에 내재된 한계를 비판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선명한 입장을 제시한다거나(「서구문학의 영향과 수용」), ‘소시민’을 바라보는 두 가지 태도를 비판 지양하면서 시민성을 강조하는(「시민문학론」) 등의 양비론이 그것이다. 또한 “4·19가 완전히 성공하여 순조롭게 계승·발전되고 있다는 것이 무책임한 이야기 이듯이 4·19가 완전히 실패하고 끝나버렸다는 해석도 위험한 것이다”⁵¹⁾와 같은 양비론적 서술로 자주 표현된다. 이를 통해 순수와 참여의 대립을 부정적인 차원으로 밀어내면서 진정한 현실참여의 의미 맥락을 새롭게 하였으며, 소시민성을 극복하고 시민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비평적 입장을 효과적으로 개진할 수 있었던 것이다. 부정적 현상의 지양과 새로운 차원

50) 「문학적인 것과 인간적인 것」, 앞의 책(1978), 111 쪽

51) 「시민문학론」, 496쪽

의 지향이라는 관점에서 그의 양비론은 변증법적 인식구조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백낙청의 비평이 설득력과 호소력을 가질 수 있었던 보다 중요한 이유는 비평의 기반을 역사적 현실과 문학적 상황에 두었다는 사실에 있다. 가령, 「궁핍한 시대와 문학정신」만 해도 “우리들 자신의 상황과 밀착시켜” 혹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이 변화에 어떠한 최선의 구체적 대책을 마련할 것인지 알기 위하여 자신의 상황을 선명히 인식하는 일이다,” 또는 “한국 같은 상황에서 사태를 선명히 밝히는 일은 오히려 획기적인 사건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등의 상황인식을 통해 현실참여의 문제를 주장한다.

당대 현실에 기반을 둔 상황인식이 한국문학의 현실적 조건에 대한 남다른 인식, 그리고 그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문학인이 해야 할 역할을 제시하려 했던 것이다. 새로운 창작과 비평의 자세를 향한 문제제기가 그것이었다. 백낙청 비평의 기반으로서 역사적 현실은 분단상황의 인식에서 분명한 형태를 찾아볼 수 있다.

한국의 작가는 양단된 국토에서 아직도 준전시(準戰時)상태라는 눈 위에 서리 맞은 악조건으로 출발하면서, 18세기식의 민권론 같은 편리한 원칙에 기대는 것조차 허용되지 않는다.⁵²⁾

우리의 행동범위가 국토양단이라는 이상현상에 의해 극도로 제한되고 있음은 이미 지적한 대로이다. 이러한 사태에서 문학은 다른 분야가 맡기 힘든 또 하나의 중대한 소임을 갖게 되었다. 남북통일을 위한 소임이다.⁵³⁾

이 같은 인식에서 자유를 위한 구체적 투쟁과 통일을 위한 문학적 소임을 당대 한국문학의 구체적인 방향성으로 제시한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상황인식과는 별도로, 문학의 방향성 차원에서는 그것이 원론적이고 피상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점이다. 많은 글에서 언급되는 분단 상황은 위 예문에서 보여주는 것 이상의 집중적인 논의를 찾아볼 수 없다. 물론 깊이 있는 논의를 불가능하게 했던 시대적

52) 「새로운 창작과 비평의 자세」, 26쪽

53) 위의 글, 29쪽

인 여건도 감안해야 할 것이다. 이는 ‘메카시즘 공포증⁵⁴⁾을 언급하는 상황에서 짐작할 수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은 당대인이거나 누구나 공유하는 보편적인 인식에 지나지 않는다. “준전시 상태”가 의미하듯 조국 통일의 염원을 피력하면서도 적대국으로서 북한의 위협을 절실하게 의식하고 있었으며,⁵⁵⁾ 무엇보다도 분단에 내재된 이념적 금기와 경직성을 넘어, 현실 곳곳에 작용하는 삶의 구체적 세목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이 경우 그것은 선언 이상의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 역사적 조건으로서 상황의 강조만으로는 구체적인 실천력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분단모순이 당대 사회의 문제점을 야기한 본질적인 모순이라는 것, 평화통일을 위해서는 민주화와 자주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성숙한 인식에 이르기 위해서는 좀 더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다.

2. 서구문학적 준거와 전통의 단절의식

백낙청의 비평을 일별해 보면 풍부한 서구문학적 지식의 활용이 두드러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는 당대 독자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줄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의 하나일 것이다. 실제로 그의 비평은 예외가 없을 정도로 서구문학적 지식을 근거로 하고 있다. 현실참여의 문학적 조건, 아놀드의 비평적 전환, 문학의 순수성을 비판하는 철학적 근거와 역사적 배경, 문학의 이월가치, 문학의 사회적 기능, 현실의 독자와 잠재적 독자, 시민계급과 시민의식, 서구 시민문학의 전통, 18세기 프랑스와 19세기 러시아, 독일의 고전주의, 19세기의 위대한 리얼리즘, 루카치의 역사소설론과 스코트의 역사소설 등 초기 비평의 핵심적인 내용들이 모두 서구의 문학사와 문학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수 없이 출몰하는 문학인들은 물론 심지어 서구 시민문학의 전통을 이해하기 위해 계보학이나 수형도(樹型圖)가 필요할 정도이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을 단순히 부정적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외국문학 전공자가 자신에게 가장 낯익은 영역을 활용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백낙청 자신의 말대로 서구문학의 영향 및 수용의 문제가 우리에게 절실한 하나의 역사적 과제라면, “서구문학의 영향을 의당 하나의 사회적 역사적 상황으로 파악하며 그 수용에

54) 「작가와 평론가의 대결」, 154쪽

55) 「서구문학의 영향과 수용」, 406쪽

요구되는 사회의식 및 역사의식의 성격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⁵⁶⁾ 이는 한국문학을 위해 매우 긴요한 작업임이 분명하다. 보다 본질적인 문제는 다른 데에 있다.

(가) 건설한 중산계급의 발전을 본 일 없는 한국사회에 유럽 부르조아지시대의 예술신조가 뿌리박았을 리 없다.⁵⁷⁾

(나) <시민의식>을 실재하는 시민계급의 의식상태로 규정한다면 서구적 부르조아지가 성립된 바 없는 한국의 역사에서 시민의식을 찾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 된다.⁵⁸⁾

위 예문은 각각 「새로운 창작과 비평의 자세」(가)와 「시민문학론」(나)의 구절이다. 몇 년의 시차에도 불구하고 문장과 인식구조가 거의 동일하다. 언뜻 한국의 특수성을 말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한국문학의 후진적 상황을 전제로 하고 있음을 놓쳐서는 안 된다. 그에게 서구문학은 참조 대상을 넘어 하나의 모델형이자 평가의 절대적인 척도로 존재한다. “한국처럼, 문학의 보호를 맡은 귀족층도 없고 건전한 중산층의 성장도 없는 나라에서 문학이 현실적 기반을 얻는 것은 널리 대중에게 읽히는 길뿐이다.”⁵⁹⁾고 주장하면서 문학의 조건을 위한 문학인의 역할을 제시할 때, 그것은 서구적 조건을 전제로 한 것이다. 또한 참다운 시민문학과 시민정신을 주장할 때도 18세기 프랑스 문학을 모델로 삼았으며 이광수와 김동인의 역사소설에서 역사의식의 부재를 비판할 때의 기준 역시 루카치의 역사소설론과 스코트의 역사소설이었다.⁶⁰⁾

이러한 서구문학적 준거들은 한국사회와 문학에 대한 실제 이상의 폄하의식으로 나타난다. 예를 들면, 그는 아놀드의 문학적 성과는 영국의 위대한 전통과 결부되어 있다고 이해한다. 그러면서 지적인 한국적 상황은 문학 유산의 빈곤, 낙후된 유교체제, 타율적 문화상황이었다.⁶¹⁾ 이와 함께 비평문의 여러 곳에서 ‘발전을 본

56) 위의 글, 398쪽

57) 「새로운 창작과 비평의 자세」, 8쪽

58) 「시민문학론」, 480쪽

59) 「새로운 창작과 비평의 자세」, 27쪽

60) 「역사소설과 역사의식」, 『창비』, 1967년 봄호

일 없는, '성립된 바 없는,' '서구와 달리,' '영국이나 프랑스와 달리,' '서구의 시민 문학적 전통과 달리,' '프랑스와 러시아 최악의 시대에도 없었던 등등의 구절들을 쉽게 접하게 된다. 문제는 이러한 어사의 이면에 서구문학의 미달형으로서 한국문학을 바라보는 차별화된 인식이 내재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앞의 예문에서도 파악할 수 있듯이 서구적 시민문학의 관점에서 바라본 한국의 사회와 문학은 결점 투성의 미달형이었다. 그러니까 당대의 사회와 문학이 처한 위기를 객관적으로 진단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결국 한국문학의 빈곤성과 낙후성으로 귀결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서구문학의 시각에서 한국문학을 판단하는 인식구조에 결정적인 원인이 있다. 그것이 다음과 같은 극단적인 전통단절로 표명된 것은 당연한 일이다.

우리 문학의 참다운 고전을 딛 데서 찾아보려는 노력도 있다. 소수 지배층의 문화가 아닌 우리의 서민문화, 그리고 실학파의 작품이야말로 한국 고유의 문학유산이며 주체적 근대화의 발판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과연 여기에 산 전통이 있는가? 적어도 역사가 좀 다른 코스를 밟았을 경우 스스로 근대화하여 1960년대에 생동할 수 있는 전통이 있었는가? 62)

이러한 전통인식이 “우리의 동양적·한국적 전통은 그 명맥이 끊어졌고 이를 뜻 깊게 되살릴 길은 아직 열리지 않았다”고 규정하게 했던 것이다. 이 같은 자기 폄하는 근대문학을 바라보는 시각에서도 드러난다. 일제 강점기에 부각되는 문학인으로는 이광수에 불과하고, 60년대까지 확대하더라도 백낙청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은 인물로는 한용운과 김수영만 꼽을 수 있을 정도이다. 염상섭의 『삼대』도 불철저한 시대인식에서 비판적이며, 홍명희의 『임거정』마저 고담에 불과하다고 평가한다.

더욱 문제적인 것은 20년대의 한용운과 60년대의 김수영 사이에 존재하는 이 땅의 수많은 작가와 작품이 외면당했다는 점이다. 따라서 그 기간은 문학적·시대적 공백으로 남게 된다. 이러한 단절은 서구에 몰입된 상태에서 한국문학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한 데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 어쩌면 고등학교를 졸업하자

61) 『궁핍한 시대와 문학정신』, 139쪽

62) 『새로운 창작과 비평의 자세』, 16쪽

마자 미국으로 유학 간 백낙청에게 한국근대문학에 대한 소양이 거의 없었기 때문일 수도 있다.

물론 우리는 초기 비평에서 노출하였던 단절적 시각이 정직한 자기 성찰과 한국문학에 대한 소양의 축적을 통해 점차 극복해 가는 모습을 보게 된다. 이러한 변화는 「시민문학론」에서 자기반성하고 있는 대목뿐 아니라,⁶³⁾ 다음과 같은 인식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때 그때의 부분적인 단절과 비약과 왜곡을 포함하여, 연속되는 하나의 커다란 흐름으로 그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낼 때 한국 사회의 정체성론 및 한국전통의 단절론, 그리고 그것이 암시하는 정치적·경제적 또는 문화적 식민지화의 당위론을 완전히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⁶⁴⁾

그리하여 백낙청은 4·19의 전통을 원효, 실학, 동학 그리고 3·1 운동으로 이어지는 한국문학의 연속적 흐름으로 파악하기에 이른다. 이러한 변화는 『창비』에 실학의 고전을 연속으로 기획한 의도와 깊은 관련이 있을 것이며, 국문학계의 연구 성과에서도 직간접으로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또한 시대적 단절로 남아 있던 문학사적 공백이 근대문학의 작가와 작품들로 채워지고 있으며, 60년대 문학을 50년대 문학의 연속으로 바라보려는 합리적인 시각도 확보한다. 그러나 서구문학에 침윤되어 있던 초기 비평의 인식구조에는 한국문학의 전통을 전체적으로 통람할 소양이나 인식이 결여되어 있었다. 다만 서구문학의 준거틀로 조망된 한국문학은 다음과 같은 존재에 불과하였다.

자신의 과거 문학의 후신도 아니요 현재 세계문학의 일부도 아니며 그렇다고 20세기 한국이라는 소우주가 따로 있어 그 속에서 자기 나름의 완벽한 기능을 가진 것도 아닌 문학—이것을 한 나라 한 사회의 문학이라고 부르는 것부터가 억지인 듯도 하다.⁶⁵⁾

63) 「시민문학론」, 480~481쪽.

64) 위의 글, 483쪽.

65) 「새로운 창작과 비평의 자세」, 22쪽.

그의 눈에 비친 한국문학의 수준은 한 나라의 문학이라고 부르기 민망할 정도의 수준이 아닌가. 기대하는 지평은 저 멀리 있는데, 경험하는 현실은 이처럼 후진적이고 낙후된 모습이었다. 경험공간과 기대지평 사이의 막막한 거리에 놓인 지식인이, 그렇다고 홀가분하게 문학의 부재를 선포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한국의 문학인은 무엇을 할까?’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한 질문은 백낙청에게 문학하는 자세가 “목숨과도 같은 자책⁶⁶⁾여야 한다는 결의에 찬 주문을 동반할 만큼 절실한 것이었다. 그러나 그 절실함의 한편에서 이 땅의 현실적 맥락이 결여된 이상주의적 경향이 자리하고 있다는 점도 그의 인식구조와 관련하여 주목해야 할 것이다.

3. 이상적 모델형의 지향과 추상적 관념화

미국 유학에서 돌아온 백낙청이 발 딛은 이 땅의 문학은 초라하기 그지없었다. “문학의 유산이 빈곤하고 문학활동의 기반이 태무한 곳”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도는, “재래식 장르개념과 수법은 물론, 창작과 비평 활동의 경계, 문학과 문학아닌 것의 구분, 훌륭한 것과 훌륭하지 않은 것의 차이까지도 깡그리 새로 찾아내⁶⁷⁾어 새롭게 창조하는 길밖에 없다. 이런 작업을 통해 그는 ‘모든 사람이 다 가장 훌륭한 문학을 가장 건전하게 즐기는 상태’를 꿈꾸었다. 이러한 상태를 구현하기 위해 그가 힘썼던 것이 문학의 조건이었음은 앞에서 살펴본 바 있다. 백낙청은 그와 가장 가까운 역사적 전례를 고대 그리스와 17세기 프랑스와 중국의 당송시대에서 찾고 있다.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그가 역사적 전례로 삼았던 문학의 존재 방식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상적 모델형’이라는 사실이다. 그것은 고대 그리스처럼 항상 전시민이 한 자리에 모인 곳에서 발표되고, 모든 청중이 참여하여 축제처럼 흥겹게 즐길 수 있는 문학, 아니면 17세기 프랑스의 경우처럼 높은 문화 수준과 동일한 종교 및 사회이념으로 뭉쳐진 공동체에서 작가와 독자가 긴밀히 대화하는 가운데 고전적인 미덕을 갖춘 문학이다. 그러한 상태는 작가와 사회와 독자들의

66) 위의 글, 35쪽

67) 위의 글, 23쪽

개별적인 즐거움이 완전한 하나의 합일 상태로 존재하는 이상적인 사회를 전제로 한다. 이 점에서 백낙청 비평이 궁극적으로 이상적 모델형을 지향하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짐작은 그의 비평 전체에 걸쳐 폭넓게 포진하고 있는 데서 확인할 수 있다. 「시민문학론」의 다음과 같은 부분을 보자.

우리가 <소시민>과 대비시켜 우리의 미래를 위한 이상으로 내걸려는 <시민>이란, 프랑스혁명기 시민계급의 시민정신을 하나의 본보기로 삼으면서도 혁명 후 대다수 시민계급의 소시민화에 나타난 역사의 필연성은 필연성대로 인정해주고, 그리하여 그러한 필연성을 기반으로 하여—또는 그와 다른 역사적 배경인 경우 그와 다른 필연성을 기반으로 하여—우리가 쟁취하고 창조하여야 할 미지·미완의 인간상인 것이다.…다만 우리가 할 수 있고 마땅히 해야만 하는 것은, 넓게는 인간의 전 역사와 좁게는 각개인의 자아를 깊이 더듬어 우리가 추구할 수 있고 추구해야만 하는 시민의 길을 찾아가는 작업일 것이다.⁶⁸⁾(밑줄: 인용자)

민족문학과 더불어 백낙청 특유의 이념형의 하나인 시민문학론은 서구적 모델형을 근거로 하고 있다. 물론 그의 시민문학론은 서구적 모델을 취하면서도 당대 한국 사회의 역사적 배경과 지향성을 전망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이 점에서 그것이 갖는 비평적·역사적 의미가 훼손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의 경우 시민사회와 시민의식에 대한 인식이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은 4·19를 거친 60년대 중반 이후부터였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시민문학론」을 전후하여 이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된다. ‘소시민의식’과 ‘시민의식’을 둘러싼 문단의 논의는 물론, 《사상계》도 몇 번에 걸쳐 시민사회에 관한 특집을 마련한다.⁶⁹⁾ 이와 함께 60년대부터 시민의 자발적 힘에 의한 역사적 추동력이 형성되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그의 비평적 기획이 60년대 사회 구성원들의 의식수준과 당대 사회의 역사적 방향성과 무관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68) 「시민문학론」, 465쪽

69) 대표적인 경우로는 「특집 시민사회의 의식구조」, 《사상계》, 1968년 2월호 「시민사회의 윤리와 복지국가에의 환상」, 《사상계》, 1969년 7월호; 「『시민없는 도시』의 환상」, 《사상계》, 1970년 3월호 등을 들 수 있다

문제는 백낙청이 당대 사회의 과제를 시민혁명의 완수로 파악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시민혁명의 완수라는 과제의 설정은 그의 이상적 실천 지향을 드러낸 것이다. 완성이란 미완을 전제로 한다. 그에게 인류의 꿈을 향한 어떤 대사건과 혁명도 완전한 성공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3·1운동도, 4·19도, 심지어 프랑스 혁명마저 미완의 혁명이다. 그의 시민적 이상에 준한다면 시민혁명, 시민의식, 시민문학은 실천으로서 지향성이지만 끊임없이 완성을 추구하는 이상적 모델인 셈이다.

위 예문의 ‘시만 역시 프랑스 혁명의 시민정신을 본보기로 삼으면서도 아직은 찾아가야 할 미지·미완의 인간상이다. 그가 창조해야 할 ‘시민’은 그러므로 하나의 이상상이다. ‘시민다운 시민,’ ‘참다운 지성인,’ ‘진정한 시민정신,’ ‘완숙한 시민문학’ 등의 어사에 주목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의 비평 곳곳에서 나타나는 진정한, 완숙한, 참다운, 정당한, 제대로, 진정한 등등은 이상적인 모델형을 향한 수식어이자 미달형의 한정어와 다름없다.

특히 이것들이 현실적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의미의 해명이 필요하다. 하지만 객관적으로 규정할 어떤 조건도 그는 제시하지 않는다. 따라서 그것은 우리 모두의 보편적 공의(公義)에 의해 결정될 수밖에 없는 추상적인 차원이다. 아울러 ‘궁극적 이상,’ ‘시민적 이상,’ ‘이상적 차원,’ ‘이상적으로,’ ‘문학인의 이상,’ ‘이상의 실현,’ ‘이상적인 문학’ 등 그의 비평에서 널리, 그리고 중요하게 제시되는 용어들도 이상주의적 지향을 담고 있다. 백낙청의 인식구조 내에 자리한 이상주의적 경향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나타난다.

실로 사랑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시민이 있고 사랑이 없는 자는 어디서 무엇을 해도 시민이 못된다고 잘라 말할 수 있는 역사적 조건이 성숙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이제까지의 머뭇거림을 떨쳐버리고 <사랑>을 <시민의식>의 정확한 동의어로 쓸 수 있는 날을 우리는 적어도 내다볼 수는 있게 된 것이며, 그 날이 오면 모든 시민문학이 바로 세계의 문학, 인류의 문학으로 되고 인류만이 아닌 <일체중생>을 완성으로 이끌고자 태고부터 움직여 온 사랑의 작업이었음이 드러나리라는 것도 점점 뚜렷이 터득되고 있는 것이다.⁷⁰⁾

70) 위의 글, 509쪽

여기서 시민의식과 동의어로서 ‘사랑’의 절대화를 볼 수 있다 특히 주의 깊게 봐야 할 것은 ‘그 날’이라는 막연한 시간대의 설정이다. ‘그 날’은 시간적 차원이 아니라 ‘이상적 상태’이다. 그러면서 시민의식은 이제 “일체중생을 완성으로 이끌고자 태고부터 움직여온 사랑의 작업”이라는 매우 추상적인 개념으로 연결된다. 이상적 모델형의 지향이 추상적 관념화를 낳고 있는 것이다. 추상적 관념화는 그가 시민적 이상으로 삼았던 자유, 평등, 우애의 시민의식을 페야르의 생물학적 진화론으로 설명하는 대목에서 전형적으로 드러난다.

백낙청은 민주주의 이념의 추진력이 ‘진화의식’ 내지는 ‘종의 의식’에 있고, 시민의식의 핵심사상인 자유, 평등, 우애는 ‘우주론적 근거’이자 ‘우주사적 과업’이라고 강조한다. ‘우주론’을 거론하는 대목에서 그의 추상적 관념화를 뚜렷하게 볼 수 있다. 더욱 큰 문제는 시민의식이 ‘진화의식,’ ‘종의의식,’ ‘우주론적 근거’로 설명될 때 과연 그것이 얼마나 현실적인 역사의식이며 또한 구속력 있는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겠는가 하는 점이다. 우주론적 진화, 원숙한 관점, 유기적 생명관, 일체중생, 기독교의 사랑, 불교의 자비, 플라톤의 에로스, 인류애 등의 추상적인 개념을 통해 시민의식의 역사적 필연성과 정당성을 강조하는 순간, 역설적으로 시민의식의 역사적 맥락과 현실적 의미는 사라지고 만다.⁷¹⁾ 그것은 인간의 다른 모든 이상을 통괄하는 이름과 다를 바 없다. 이는 그의 비평이 관념적 인식⁷²⁾에서 출발하고 있음을 명백히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이상적 모델형의 설정과 추상적 관념화에도 불구하고 백낙청의 비평적 기획은 공소성에 쉽게 함몰되지 않는 견고함을 갖추고 있다. 그것은 이상적 모델을 지향하면서도 경험적 현실을 토대로 단계적 전략을 통해 조정하면서 구체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족문학의 현단계, 민족문학의 새 단계, 한국문학의 현단계 등 유독 ‘현단계’를 강조하는 데서 이 점을 여실히 파악할 수 있다. 그의 입론이 설득력과 현실성을 갖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단계적 전략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백낙청은 한국의 역사적 현실을 밀도 있게 반영하면서 상당히 구체적인 논의를 전개시

71) 역사성을 비역사성으로 환원시켜버리는 백낙청 비평의 인식구조에 대해서는 정과리, 「민중문학론의 인식구조」, 『문학과사회』, 1988년 봄호에서 매우 날카롭게 지적된 바 있다.

72) 이러한 특성을 김우창은 ‘주정적 주의적 태도’(「민족 문학의 양심과 이념」, 『세계의 문학』, 1978년 여름호)로, 김치수는 정서적 혹은 주정적 반응의 결과(「양심 혹은 사랑으로서의 민족문학」, 『문학과지성』, 1978년 가을호)로 지적하고 있다.

킨다. 다만 구체적인 현실인식과는 별도로 그의 기대지평은 이상적 모델형을 지향하고 있었으며, 70년대 이후 전개되는 민족문화론은 이상적 모델형과 추상적 관념화를 조금씩 탈각시키면서 현실에 밀착시키는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IV. 결론: 변화와 지속의 측면

백낙청의 초기 비평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사실은 그의 참여가 결코 역사적 현실의 참여가 아니라 문학의 조건 개선을 위한 참여였다는 점이다. 그가 직접적인 참여를 부정했던 것, 문학이 문학 아닌 어떤 것으로 변할 때, 문학의 사회적 기능도 없어진다는 인식, 그리고 ‘문학’과 ‘문학 아닌 것’을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던 사실 등이 이를 뒷받침한다. 그의 비평적 기획은 건전한 놀이, 곧 ‘즐감’으로서 문학의 사회적 기능과 위상을 수립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그것은 순수와 참여의 대립을 넘어서는 보다 높은 차원의 문제였다.

백낙청의 인식에 따르면, 한국문학의 낙후성은 정치, 경제, 문화적인 조건과 깊은 관련이 있다. 따라서 당대 한국문학의 존립여부는 문학의 제반조건들을 개선하는 데 달려있다고 보았다. 그것이 계몽주의적 열정을 동반한 지식인의 참여와 책무로 나타난 것이다. 이러한 계몽적 기획의 입장에 섰을 때, 왜 그가 18세기 프랑스로 대혁명 이전의 계몽문학기를 작가에게 가장 행복했던 시기로 이해했는지, 우리 문학의 경우 유독 이광수의 문학적 성과가 그의 비평에서 중요하게 부각되고, 또한 중산계급을 전제로 한 시민문학론을 강력하게 주장했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

서구문학의 기준으로 바라본 한국문학은 전통으로 받아들일 만한 문학적 자산도 없이 단지 개량의 대상으로 존재했다. 이러한 인식은 1960년대 중반 한국문학의 낙후된 경험적 현실과 이상적인 기대 지평 사이에 존재하는 막막한 거리에서 연유한다. 그것은 역으로 백낙청이 주체적 시각을 확보하지 못했음을 뜻한다. 한국문학에 대한 소양 부족과 특수성에 대한 인식의 결여가 전통의 단절의식, 서구문학적 준거틀, 이상적 모델형의 지향, 추상적 관념화로 나타났던 것이다. 백낙청의 초기 비평에서 두드러지는 이러한 인식적 특성은 그의 비평 전체에 걸쳐 변화와 지속의 측면으로 나타난다.

우선 눈에 띄는 변화는 전통의 단절에 대한 자기반성, 한국문학의 소양 강화, 서구적 기준의 약화, 개념의 내실화, 구체적인 현실적응력 등을 통해 초기 비평이 안고 있던 문제점들을 상당부분 극복하면서 민족문학론으로 발전시켜나가는 모습에서 찾을 수 있다. 분단상황만 하더라도 18세기 민권론 수준의 자유나 민족의 동질성 확보라는 상식적인 수준에서 민족모순의 본질적인 문제로 인식하기 시작한다. 여기에서 민족문학이 민족의 주체적 생존과 직결된 역사적 개념으로 규정된다. 이러한 변화는 백낙청 비평의 심화와 확대의 과정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점에 주목할 때 “1974년 이후 민족문학론으로 발전함으로써 일거에 시민문학론의 한계에서 벗어났다”⁷³⁾는 지적은 한편으로 수긍할 만하다. 그러나 긍정적인 변화와는 별도로 초기 비평의 문제점이 여전히 노출되는 현상 역시 발견된다.

그 중에서도 가장 뚜렷한 흔적은 이상주의적 성향과 추상적 관념화이다. 80년대 중반까지 분단극복과 인간해방을 민족문학론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설정했던 백낙청은 90년대 들어 새로운 리얼리즘, 분단체제로, 근대극복론으로 나아간다. 이와 함께 전지구적 차원의 민중연대로까지 확장시킨다. 문제는 그가 지구 시대 세계문학운동의 일원인 민족문학운동,⁷⁴⁾ 그리고 세계문학 이념의 수호와 새로운 세계문학운동의 출현을 주장하는 순간,⁷⁵⁾ 민족의 위기의식 혹은 분단극복의 실천으로서 민족문학론의 역사적 구제성은 사라지고 만다는 점이다. 그것은 당위적이고 소망하는 이상적인 차원일 수는 있으나 구체적 실천방향으로서 현실적 가능성은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민족문학의 과제를 성차별, 생태계, 동아시아의 문화까지 무한정 넓힐 때,⁷⁶⁾ 외연의 확장만큼이나 구체적이고 역사적인 단계로서 ‘지금, 이곳’ 민족문학의 현실성과 내포는 사실상 존재의의를 상실한다. 그것은 이미 민족문학의 문제가 아니라 문학 일반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한국문학의 특수성을 세계문학적 보편성으로 환원시켜버리거나 추상적인 영역으로 경계를 지워버리는 이상주의적 경향은 역사성을 비역사성으로 환원시켜버리는 초기 비평의 이상주의적 경향과 그리 멀지 않다.

73) 최원식, 앞의 책, 304쪽.

74) 「지구 시대의 민족 문학」, 『창비』, 1993년 가을호, 118쪽.

75) 「민족 문학론, 분단 체제론, 근대 극복론」, 『창비』, 1995년 가을호, 23쪽.

76) 「90년대 민족문학의 과제」, 『창비』, 1991년 봄호 104쪽.

또한 초기 비평에서 나타나는 사랑의 절대화, 종의 의식, 우주론적 근거, 일체중생과 같은 추상적 관념화 역시 인간의 본마음, 무념, 무상, 무위, 양심, 양지(良知), 도, 순수한 마음, 거룩한 것, 거룩한 순간 등으로 반복되고, 90년대 들어서도 새로운 리얼리즘을 ‘지공무사(至公無私)의 경지(77)로 제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산견(散見)된다. 문제는 그것이 90년대 이후 민족문학의 위기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이다. 이 점에서 백낙청 비평의 한계와 직결된 이러한 문제가 초기 비평에서부터 내재된 뿌리 깊은 것이라는 사실을 허투루 넘겨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상적 모델형의 설정과 그 기대 지평의 현실화를 위한 열정과 노력이 백낙청 비평을 추동하는 내적 동인이었던 사실은 인정해야 한다. 그런 열정과 자기 갱신의 노력이야말로 시대와 상황의 변모를 예민하게 수용하면서 민족문학론을 씌 없이 심화하고 확장할 수 있었던 동력이었다. 바꿔 말해 백낙청 비평의 역동적인 면모는 이상주의적 기획의 현실화를 위한 자기 갱신과 비평적 열정의 전개과정이었다. 우리가 백낙청 비평의 전체를 이해하기 위해 먼저 그의 초기 비평을 문제 삼아야 할 이유도 여기에 있다.

참고 문헌

- 강경화, 『한국 현대문학의 이면과 탐색』, 서울 푸른사상 2005.
고명철, 『갈날 위에 서다』, 서울 실천문학사, 2005.
구중서, 『민족문학의 길』, 서울 새밭, 1979.
권성우, 「60년대 비평문학의 세대론적 전략과 새로운 목소리」, 『1960년대 문학연구』, 서울 예하 1993, 11~37쪽.
권성우, 「1960년대 비평에 나타난 ‘현대성’ 연구」, 『한국학보』 96집, 1999년 가을호, 2~29쪽.
김미정, 「1970, 90년대 민족문학론에 나타난 ‘주체성’에 대한 인식 양상」, 『동남어문논집』 15집 2002, 57~66쪽.
김우창, 「민족 문학의 양심과 이념」, 『세계의 문학』 1978년 여름호, 176~191쪽.
김인환, 「민족문학과 리얼리즘」, 『외국문학』 1985년 여름호, 364~371쪽.

77) 「지구 시대의 민족 문학」, 105~106쪽.

- 김치수, 「양심 혹은 사랑으로서의 민족문학」, 『문학과지성』 1978년 가을호, 967~975쪽
- 김태현, 「백낙청론」, 『문학의 시대』(3), 서울: 풀빛, 1986, 11~30쪽.
- 문홍술, 「90년대 민족문학론의 위기, 그 실체」, 『무에』 1998. 5, 34~53쪽
- 성민엽, 「민중문학의 논리」, 『1985년 가을』, 서울: 현암사, 1985.
- 이명원, 『타는 혀』, 서울: 새움, 2000.
- 정과리, 「민중문학론의 인식구조」, 『문학과사회』 1988년 봄호, 72~129쪽
- 최원식, 『민중문학의 논리』, 서울: 창작과비평사, 1991.
- 하정일, 「시민문학론에서 근대극복론까지」, 『한국문학평론』 1997년 여름호, 117~146쪽
- 한강희, 「1960년대 한국문학비평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7.
- 레나토 포지올리(저), 박상진(역), 『아방가르드 예술론』, 서울: 문예출판사, 1996.
- 테리 이글턴(저), 김명환·정남영·장남수(역), 『문학이론입문』, 서울: 창작사, 1986.
- 폴 프티티에(저), 이종민(역), 『문학과 정치사상』, 서울: 동문선, 2002.
- T.W. 아도르노(저), 김주연(역), 『아도르노의 문학기론』, 서울: 민음사, 1985.

국문 요약

백낙청의 초기 비평에서 가장 중요한 비평적 기획은 건전한 놀이, 곧 '즐김'으로서 문학의 이상적인 기능과 위상을 수립하는 것이었다. 특히 그의 참여가 역사적 현실의 참여가 아니라 문학의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참여였다는 점은 주목할 사실이다.

그의 초기 비평은 양비론적 인식구조와 서술전략, 그리고 역사적 상황인식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풍부한 서구문학적 지식을 활용하면서 비평의 설득력을 확보한다. 그러나 문제는 새로운 문학을 정립하기 위한 절실함에 비례하여 이상주의적인 경향과 추상적 관념화를 드러낸다는 점에 있다.

이러한 인식적 특성은 그의 비평 전체에 걸쳐 변화와 지속의 측면으로 나타난다. 중요한 변화는 초기 비평의 문제점들을 극복하면서 '민중문학론'으로 심화, 확장시켜나가는 과정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이상주의적 성향과 관념적 추상화 역시 지속적으로 산견된다. 백낙청 비평의 한계이자 90년대 민족문학의 위기와 직결된 이러한 문제점은 초기 비평에서부터 내재되어 있었던 것이다.

● 투고일 : 2006. 4. 3.

● 심사완료일 : 2006. 5. 29.

● 주제어(keyword) : 백낙청(Baek, Nak-cheong), 문학의 이상적 기능(ideal functions of the literature), 비평적 기획(critical planning), 이상적 모델형(ideal model), 관념적 추상화(ideological abstraction)